

특별히 선택받은 자

시편 135:4

박용배 목사님

이것은 내 멍함인데, 앞에는 내 소개를 했고, 뒤에는 '에벨레로 살 것인가, 나비로 살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 놓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을 소개한다. (https://youtu.be/k4CBe_bhshs) 굶배기로 산다면, 실개천도 홍수가 되고, 돌맹이 하나도 큰 산이 되지만, 나비가 되면 호랑이가 와도 팬광조 절벽도 강물도 상관이 없게 된다.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여러분이 훈련 잘 받고 전도자 되어서 나비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내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시편을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야곱은 인격이 고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아니면 안 찾는, 육신에 빠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고 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이다. 그러려면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당동 총신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부탁드렸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젊은 날에, 폐결핵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속에서 계속 울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삶이 무엇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에 먹을 것을 파는 아줌마가 올라오시더니, "젊은 계란이요" 이라고 나갔다는 것이다. (웃음) 삶이 뭐냐 하고 있는데 삶은 계란이라고 하니까. (웃음) 그래서 계란을 계속 생각했다고 한다. 계란을 세우려고 하면 안 세워지지 않나. '아,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쓰러지는구나. 나는 계란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면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한다. 우리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 강인어른은 안동의료원에 1년 정도 입원해 계신다. 장모님이 여든 한 살 되신 전도사님인데, 안동 하회마을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도 세 군데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내가 수요일에 내려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70, 80되신 분이 30명 정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다. 찬송반주기를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노인들이 느리니까 반주기 4절이 다 끝났는데 어르신들은 3절을 아직도 부르고 있다. (웃음) 왜 틀어놓나 싶었다. 장모님께 좀 쉬시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앞으로 교회 두 군데는 더 지어야 한다고 했다. 시골이니까, 성도들이 참기름도 주시고 꿀도 주시고 그런다. 그것을 받아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딸, 우리 사위 줄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더라.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사본

시편 34:10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다. 시편 107:9에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다. 시편 84:11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로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기뻐하시니라." 로마서 8:32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미국 일간지에 어떤 분이 광고를 냈다. "우리 아버지를 만 불에 팝니다." 12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중풍과 치매가 와서 거동을 못 하고, 대소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는데, 너무 지쳐서 아버지를 팔려고 마음먹었으니, 아버지를 사가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이 연락해 왔다는 것이다. 자기가 사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다. 누구나 했더니, 부부가 고아원에서 자란 분들이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1주일 동안 생각해 보고 결단이 되거든 연락하라고 했다. 1주일 후에, '우리는 아버지가 병 들었어도 괜찮으니 꼭 모시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버지를 사러가 보니까, 병든 아버지를 모실 수 없도록 힘든 집인 줄 알았더니,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이었다. 벨을 누르니까 하인이 와서 영접한다. 들어가 보니까 노인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한 아들이 정작 이 할아버지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착한 사람을 양자를 삼아서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웃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얼마나 우리가 아미아미한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고린도전서 2:12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 씨는 너무 어려운 집에서 자라서 수성기해서 관료가 되고, 이주대 총장이 되고, 부총리까지 되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고난은 축복이 위장되어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요셉도 위장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모세도 그렇다. 한나도 그렇다. 시대적 나실인 사무엘을 주시려고 위장된 축복을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장에 속아 버린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 아미아미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다락방을 진짜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기도도 단순해졌다. 신명기 6:4-9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유대인은 율법을 각인시키는데, 사실은 복음을 각인시켜서 사상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과실을 주시겠다고 했다. 4-9절만 하면, 10-25절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각인을 등한히 하고 열심히 집 짓으려고 뛰어들다가 안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6:33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다.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1. 종교생활

나의 과거를 말씀드리면, 나는 무너진 사람이었다. 종교생활이었다. 마태복음 16:14였다. 종교생활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었다.

(1) 그런데 내에게는 '3요'가 있었다.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3요였다. 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다.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었다. 뭣든지 겁이 났다. 여러 분은 능력자라서 안 그렇겠지만 나는 복음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 모세는 40년이나 왕궁에 있었다. 하나님 모르는 강왜 같은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어떻게 간단 말인가. 출애굽기 3:11, 14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너는 모세다' 해야 할 것인데,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수준, 우리 표준, 우리 기준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는 되어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해야 하나. 마태복음 5:36에, 우리는 터럭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19:26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빌립보서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다.

(2) 내게는 3무가 있었다.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다.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12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다. 사도행전 1:8에, 권능 받고 능력자가 될 줄 믿는다.

(3) 나는 3주의가 있었다. 인본주의다. 하나님 능력 못 믿고 잔머리를 썼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다. 그리고 율법주의다. 전부 성령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계속되니까, 나에게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다.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다. 늘 염려를 달고 살았다. 읊처럼 걱정했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2. 복음에 결론 난 인생

복음에 결론 난 인생이 되었다. 마태복음 16:16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1) 렘넌트 일곱 명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론을 내리고 시대 살리도록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① 마태복음 1:1-16에, 예수님의 계보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 다말, 밧새바, 라합도 나온다.

② 히브리서 11:1-40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다.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

(2) 세계복음화한 주역들이 있었다.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다. 로마서 16:1-27에 일곱 가지 이면계약과 별명이 나온다.

① 그 중 대표적으로 보호자,

② 동역자,

③ 식주인 역할이 나온다.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3) 원래 이렇게 되어야 정성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뒤에 이렇게 된 사람도 성경에 나온다. 창세기 22:1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이삭의 나이는 22세였다고 한다. 지게에 반체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잡아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신 것이다. 어떻게 독자를 바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19에, 주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날 이후로는, 백 번을 드리라고 해도 망설이지 않고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후에, 히브리서 6:14에,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삭은 안 드리면서 이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헌신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온다. 창세기 28장에 베델로 가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잊어버린 것이다. 그랬다가 어머머마한 위기를 만난 후에 베델로 간다.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다. 베냐민 핏덩이를 안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다. 내가 17살 때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영화를 봤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간 것이다. 이 남편이 탈영을 해서 작은 배를 가지고 부인과 탈출하는 것이다. 겨우 외국에 도착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인이 죽어버린 것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생을 바쳐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야곱이 기가 막힌 것이다.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 임한 것을 봤다. 그런데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다. 그랬다가 부인 죽고 나니까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한다. 어려움 가운데 사면초기를 만나서 하지 말고 축복 가운데 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후처를 취하거나 동생을 비난한다. 하나님이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다. 그 날 이후로 미리암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미리암은 입을 단았을 것이다. '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입 함부로 놀리면

죽겠구나.' 그 날 이후로 셋 더 마우스다.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나나 나나...' 하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5:1-17, 게하시의 엘리사를 통한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나이만 장군의 은근에 눈이 멀었다. 그런데 그 문둥병에 자기가 걸려 버린 것이다. 그 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란다.

3. 성령인도

성령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1) 흐름을 잘 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방주 짓는 데 올인하는 것이 흐름을 타는 것이다. 출애굽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생을 걸어야 한다. 여리고성 돌아야 할 때는 두 말 않고 도는 것이 흐름을 타는 것이다.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 문제가 터진다. 지금 참사방교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어놓은 빌딩을 사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 중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다. 우리는 90억을 주고 사서 가서 인테리어 바꾸고 방송장비를 바꾸니까 102억이 들었다. 천만 원도 없는데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다. 나는 믿습시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 성전은 비만 오면 지하가 잠기는 상태였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새해 메시지를 달라고 해서 사도행전 4:3,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리고 원단메시지를 보니까, 언약 불잡은 자에게는 요단이 갈라진단다, 여리고도 무너진단다, 태양 달도 멈춰 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불잡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분들이 안 움직이더라.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현금 하면 될 하겠다. 부도나서 상가로 갈 텐데. 지금까지는 공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상가 가게 생겼다.'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었고, 말씀 불잡고 갔기 때문에,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약 가진 교회에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출애굽기 14:13-14에 보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다. 그런데 막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현금을 한다. 지금도 56억 원 정도 빛이 있다. 5억 원 비축된 것이 있으니 50억 정도가 남는다. 11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시간 가만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불신앙이 다 없어졌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언약 가진 참사방교회는 주님이 하실 줄 믿는다. 진짜 언약 가지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까지 세계복음화해야 하는 중요한 교회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들이 소리지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되어 있다. 건축 중에 있으면 건축현금을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나? 전혀 안 하면 축복의 흐름에서 제외되니까. 사무엘하 7:1-17, 역대상 17:1-15에 보면, 다윗이, '나는 레바논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 나는 천막에 있으면 되겠느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은 '네가 이 마음을 가졌으니 나는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다. 열왕기상 8:18에, '네 마음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했다. 마음 속에 생각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성령인도다.

(2) 절대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안 받으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 결국 다락방을 떠난다.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시대에 류목사님 세워서 다락방운동을 하고 훈련받게 하시는데, 여리고를 도는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인 줄 믿는다. 요셉은 13년 동안 훈련받았다. 모세는 40년 왕궁,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년 간 훈련을 받은 후에 쓰임받았다.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려운 게 아니다. 신명기 30:11-14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되어진다고 했다. 우리보고 미국 가서 훈련 받고 오라 하면 힘든데, 마음에 있고 결단만 하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다 해 주지 않나. 인도인 줄 믿는다. 우리교회는 집중신학원 7기가 곧 시작된다. 중직자들이 다 들어와서 훈련받으라 했더니 120명이 왔다. 특별새벽기도를 한다고 하니 멀리서도 나오더라. 흐름을 타고 훈련,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실 줄 믿는다.

(3) 우리가 흐름 타고 훈련받고 준비한 후에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전도서 3:1-10에, '천하 범사에 이를 때가 있다고 했다. 이시야 60:22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허박구 2:3에,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라"고 했다. 사도행전 1:4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린다.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린다. 너무 조금이지만 편법을 쓰게 되고 시행착오가 거기에서 생긴다.

결론

(1) 호세아 10:12에 보니까,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목은 체질, 오래된 것이 있다. 30년, 40년, 50년 목은 체질이 잘 안 바뀐다. 요엘 3:10에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밧고양 파는 일에 쓰지 말고 칼로 만들라고 했다. 전쟁을 해야 하니까.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약하다 못 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라고 하라고 했다. 민수기 14:28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시지 않나. 갱신되기를 바란다. 갱신은 훈련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특별하게 쓰시려고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줄 믿는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나는 나 혼자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던 사람이다. 초등학교 중퇴자가 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가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언약 불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잠이 안 올 정

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여야 한다. 특별하게 쓰임받으려면 특별하게 훈련을 줘 받아야 한다. 쓰임받을 것이니까.

(3) 여러 가지 훈련도 많고 목표도 많겠지만, 우리교회 같은 경우는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중국인, 일본인 외에는 아직 잘 연결이 안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를 하니까, 100명 이상의 탈북 선교사와 10군데 이상의 교회를 세울 것을 두고 기도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렘넌트다. 우리 아들이 부산안마누엘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애리조나에 가 있다. 만나면 이야기한다. "너를 미국에 보낸 이유가 있다." 정은주 목사님은 한국이 목회하기 제일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우리 손자가 이룸인데, "이룸이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라." 미국 국무장관이 되려면 어릴 때 가도 되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여야 한다. "오바마도 되는 데 왜 안 되겠냐?" 어릴 때 각인시켜보자는 것이다. 최고로 복음 언약을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고로 언약을 심고 최고 엘리트교육을 시킨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 관공서에 가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공무원은 국장까지는 실력으로 가지만 그 위는 위에서 임명해야 한다. 군에서도 대령까지는 실력이지만 그 이상은 임명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복이 승천한 다음에 므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라멕이 있고 노아가 있다. 라멕은 믿음이 희미하다. 예복이 승천하는 광경을 본 므두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가 홍수 날 때 죽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복 이후 4대가 되어서 노아가 나오더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후 4대만에 요셉이 나왔다. 롯 이후 4대만에 다윗이 나왔다. 4대가 되니까 시대가 바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나는 장인 장모가 1세대로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린 분이고, 나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다. 아들도 겨우 미국 가서 낫된 환경에서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네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손자에게는 한 번 해 보자." 높게 잡아두고 나면 중간쯤 가도 괜찮지 않나? 수준높은 이야기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웃음) 여기 여전도회 젊은 엄마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영어를 아이들에게 해 줘야 한다. 유학 가면 좋지만 안 되면 유주의 도움을 받아라. 유튜브다. (웃음) 강규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데, 시간관리, 스케줄 관리 같은 것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다. 어떤 시골 교회 사모님이 시골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이야기 있다. <새중대왕의 눈물>이라는 책이다. 어떻게 하든 영어를 영어주고, 세계를 뒤흔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류목사님이 탈북자 사망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붙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중국 청도에 가서 시골로 네 시간을 가니까, 농촌에 탈북자 일곱 명이 팔려와서 일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세 명은 그 주인이 못 가게 해서 못 오고, 네 명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교회로 왔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원래 인천 만수동에 살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좌경화되어서, 부인과 네 자녀를 두고 북한에 잠깐 갔다온다고 했다가 당연히 못 오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남한에 가족이 있으니 사상이 안 좋다 해서 탄광으로 보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이 딸에게 계속 '인천 만수동에 가족이 있다'는 말을 하다가 죽었다. 이 딸이 탈북을 해서 인천 만수동을 찾겠다고 우리 교회에 잠깐 왔는데, 탈북 동기가 암에 걸렸다고, 이 사람을 간호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심방하겠다고 갔다가 그 암에 걸린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정작 복음을 안 듣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RTS에 가겠다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박 모 자매라는 사망자 한 명을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나님은 80년 전에 인천 만수동의 한 가족까지 연결해서 우리에게 붙인 것이다. 하나님이 가가 막하게 하시거나 싶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우리교회에 종교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내 차가 오래됐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깨끗한 벤츠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어느 경찰서장이 내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안 팔겠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장난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뻐서, 복음 가진 분이니까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다. 자기가 관용차를 밖에서 쓰면서 시작으로만 벤츠를 타느라 얼마 타지도 못했지만, 정권 바뀌고 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제는 팔아야 되겠구나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자 20명을 만났는데, 전부 불친절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사님 혼자 친절하게 이야기했다고, 집사님께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집사님이 수리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도 내가 벤츠를 타면 되겠느냐" 했더니, "목사님, 같은 벤츠지만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는 것이다. 20명이 달라붙었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 집사님만 볼도록 함습훈련 인도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전도를 하러 나왔다. 절간을 찾아 들어가보니 무당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바로 나와서 커피 대접을 하고 그러더라. 누구냐고 해서, 목사님 하면 당장 쫓겨날 테니까, 작가이면서 가수라고 소개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했더니, 신기가 많아 보인다고 하더라. 속으로, '당연하지, 여호와와 신으로 충만한데.' 이 사람이 왜 달려나와서 대접을 하겠다? 차가 벤츠니까 사장이 줄 알고 그러는 것이다. 사실은 2천만 원 짜리인데 껌테기가 벤츠다. 세상은 그렇게 껌테기를 본다. 전도자가 전도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 껌테기도 주시는 것이다. 언약을 각인시키고 훈련받으면, 큰 집도 주시지 않나. 차도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차 하나가 문제였는가. 거러마다 풀지 않은 게 차 아닌가. 복음만 똑바로 전하면, 복음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너무 중요한 교회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특별히 부르셨다고 하지 않나. 특별 훈련을 받고 특별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락방 안 하면 몰라도, 다락방교회에 있는 한에는, 훈련 안 받으면 못 버린다.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그냥 먼저 해 버려라.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전에 갔더니 김보화 씨가 왔다가 영접했다. 그런 일들이 있다. 전도가 놀리는 게 아니다. 즐기는 것이다. 훈련받고 즐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굶餓이 되지 말고 나비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줄 믿는다.